

[제2019-22호]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b>사람이 있는 문화</b>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
배포일시	2019.5.10(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hannah@kccla.org	담당자	Hannah Cho

## ‘가야금을 위한 황병기 음악’ 공연



- ▶ 공연명 : 2019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9 ARI Project」  
가야금을 위한 황병기 음악(Gayageum music of Hwang Byungki)
- ▶ 일시 :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한국음악무용예술단(단장 김동석)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http://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Hannah Cho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2019 공연작품 공모전 「2019 ARI Project」 네번째 무대로 한국 음악무용예술단(단장 김동석)과 함께 가야금을 위한 황병기 음악(Gayageum music of Hwang

Byungki)’를 5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미주 지역에서 우리 국악과 무용을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미 주류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김동석 한국음악무용예술단장의 가야금 연주와 함께 장경선, 김민정, 최은아, 김지선 등 미주지역 공연가들과 함께 마련한 공연으로 고(故) 황병기 (1936-2018) 선생의 가야금 음악을 미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故) 황병기 선생은 가야금 연주자 및 작곡가이자 창작 가야금 음악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있다. 1960년 이후 12현 가야금에 의한 창작곡 <숲>을 내 놓아 ‘창작국악’의 지평을 열었으며, 그밖에도 <침향무>, <비단길>, <춘설>, <밤의소리>, <전설> 등 많은 가야금 음악을 작곡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집 5권을 출판하여 가야금 창작 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로 인해 가야금과 그의 음악이 세계 음악인들에게 인정받고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우리의 전통음악과 그 세계화에 독보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번 공연은 김동석 예술단 단원인 김민정의 <살풀이>춤 시작으로 황병기의 최초의 가야금 독주곡인 <숲>을 김동석의 가야금과 장경선의 장고 연주로 소개된다. 김동석의 장고와 장경선의 가야금 연주로 <침향무>, <비단길>, 최은아의 <태평무>, 김지선의 가야금과 김동석의 장고 연주로 <달하 노피곰>, 마지막으로 <정남희제 황병기류 산조>가 김동석의 가야금과 장경선의 장고 연주로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김동석 단장은 황병기 선생님의 제자로서 국악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이론을 전공하고, UCLA 소수음악과를 거쳐 호프 인터내셔널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997년부터 2013년 까지 UCLA 민족음악과 한국음악 프로그램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악기 연주와 이론을 강의했다. 현재는 은퇴후 김동석 한국음악무용예술단의 단장과 LA통합교육구에서 미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음악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문화 전파를 위해 국악교육에 힘쓰고 있다.

박위진 문화원장은 “현대 국악을 개척하며 민족적 경계를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故)

황병기 선생의 가야금 공연이 개최 되어 무척 기쁘다. 문화원의 대표 공연 프로그램인 「2019 ARI Project」를 통해 ‘한국 국악의 美’를 미 현지인들에게 알릴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한다.

[www.kccla.org](http://www.kccla.org), 323-936-3015

## 가야금을 위한 황병기 음악 (프로그램 /출연진)



### 출연진 소개

**Dongsuk Kim** : Studied Gayageum(Kayagum) at National Kuk-ak sa yang sung so ( National High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Music ) from 1958- 1963, under Kim Yeong-yun(김영운), Hwang Byungki(황병기) , Sung Geum- ryun (성금련) , Gradua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Ethnomusicology, UCLA. Founder and director of Korean Classical Music and Dance company

**Kyungsun Chang** : Director of So Yul Gayageum Orchestra, Studied at National High School of Traditional Music, Gradua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traditional music department, member of Seoul Municipal Kore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Instructor, Korea Education Center in Los Angeles

**Minjung Kim** : Graduat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B.A. T.A. Department of Ethnomusicology UCLA Member of KCMDCO, Instructor, Korean Music Fairfax High School.

**Eunah Choi** : Graduate: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M.A. 3rd winner of 20th Korea National traditional arts competition. Member of KCMDCO, T.A. Department of Ethnomusicology UCLA.

**Jisun Kim** : Studied at National High School of Traditional Music, graduated Dankook University, Korean Traditional Music Department B.A.,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Traditional arts Department M.A. teaching assistant, Gayageum at Korean Music department, UCLA

## 프로그램

1. **살풀이 (Salpuri)** 김 민정 (Minjung Kim)
2. **숲 Forest** 가야금 김동석 (Dongsuk Kim), 장고 장경선 (Kyungsun Chang)
3. **침향무 (Chim Hyang Moo)** 가야금 장경선(Kyungsun Chang), 장고 김동석(Dongsuk Kim)
4. **태평무 (Taepyung moo)** 최 은아 (Eunah Choi)
5. **비단길 (Silk Road)** 가야금 장경선 ( Kyungsun Chang), 장고 김동석 (Dongsuk Kim)
6. **달하 노피곰 (Dalha Nopigom)** 가야금 김지선 (Jisun Kim), 장고 김동석 (Dongsuk Kim)
7. **정남희제 황병기류 산조( Chung Namhee Je Whang Byungki Ryu Sanjo)**  
가야금 김동석(Dongsuk Kim) 장고, 장경선(Kyungsun Chang)

### 1. 살풀이

살풀이 춤은 무악 장단에 맞추어 수건을 들고 추는 남도 무속 계열의 민속춤이다. 이춤은 살 또는 액 을 예방하거나 풀기위한 무속에서 나온 제의적 성격의 춤에서 유래 했다. 그러나 한말 신분제의 폐지로 무인들이 무업을 버리고 그 중 일부가 지방에 모여 들면서 감상을 위한 예술춤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춤에 내재된 심성은 깊은 한 이지만 단순히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희와 심명의 세계로 승화 시키는 이중 구조의 인감적 감정을 표현한다. 오늘날의 춤은 살풀이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 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굿거리장단이나 살풀이장단으로 시작 해서 자진모리장단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한성준 계열의 한영숙류, 이대조 계열의 이매방류, 김덕순 계보를 잇는 김숙자류가 주류를 이루고 그외 시도 무형 문화재 살풀이가 있다.

### 2. 숲 (1960)

황병기의 최초의 가야금 독주곡이 "숲"이며, 1장 "녹음", 2장 "빠꾸기", 3장 "비", 4장 "달빛"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숲은 울창한 숲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풍경을 담고 있다. 초입은 숲에 대한 작가의 객관적인 의식이 담겨 있고, 숲에서 우는 빠꾸기의 울음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윽고 어스름밤이 찾아와 숲을

비추는 달빛의 형광을 그리고 있는, 어찌 보면 잘 그려진 수채화 같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화폭처럼 넉넉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가야금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수많은 언어가 있다.

### 3. 침향무 (1970)

침향무는 침향이 서린 속에서 추는 춤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곡은 서역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조화시키고 아름다움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가야금의 조현 또한 새로우며 연주 기교도 하프 또는 공후를 연상시켜주는 부분이 있다. 이 곡에서 장구는 반주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손가락으로 두드린다든가 채로 나무통을 때리는 등 새로운 기교로 특이한 효과를 낼 때도 많다.

### 4. 태평무

궁중정재와 민속무용이 결합된 태평무 에 대한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대개 20 세기 초 한성준이 창작하여 무대에 올린 춤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 무속춤을 재 구성하여 추었던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이름에 보듯이 나라의 태평성대와 왕실의 번영을 위하여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궁중풍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장단에 맞춰서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빠른 발놀림이 일품이다. 겹걸음, 잔걸음, 뒷꿈치꺾기, 무릎들어걷기 등이 있으며 발 디딤의 기교가 현란 하면서도 여유로운 절제미가 있으니 궁중 정재의 아름다움과 , 흥이 표출되는 민속춤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어 한층 격조 높은 춤으로 표현 되고 있다.

### 5. 비단길

비단길(1977)은 작곡자의 설명에 의하면 "신라 고분에서 발견되는 페르시아 유리 그릇의 신비로운 빛에서 작곡 동기를 얻었는데, 그 악곡명은 고대 동서 문물이 교역되던 통로의 이름이면서 신라적인 환상이 아득한 서역에까지 펼쳐지는 비단같이 아름다운 정신적인 길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한다. 제 1 장은 미묘하게 변화해 가는 리듬을 타고 환희와 슬픔이 얼룩진 신비로운 선율로 되어 있다. 제 2장은 빠른 4박자의 리듬에 의한 선율이 차츰 높은 음역으로 고조되어 걱정적인

화음과 리듬에 의하여 절정을 이루면서 끝난다. 제 3 장은 화음으로 장식된 고요한 선율로 되었는데, 중간에 북소리와도 같은 저음부의 리듬이 출현하여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끝으로 제 4 장은 새로운 주법으로 연주되는 특이한 고음의 분산 속에 음산한 저음이 네 번 울리고 이어서 저음군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다가 그치면 중소리를 연상시키는 화음이 네 번 울리고 제 1 장의 주제 선율이 재현되면서 전곡이 끝난다.

#### 6. 달하 노피곰(1996)

17 현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달하 노피곰은 두산 그룹이 창립 100 주년 기념으로 위촉한 작품으로 1996 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작곡자 자신의 가야금과 김정수의 장구로 초연 되었다. 백제의 가요 (정읍사) 첫구인 "달하 노피곰 돋으샤 어기야 멀리곰 비취오시라" 에서 곡명을 따 왔다. 모두 5 장으로 1 장 "경건하게", 2 장 "중중모리", 3 장 "엇모리", 4 장 "고요하게", 5 장 "휘모리"로 되었다. 마지막 장이 전 곡의 클라이맥스인데, 중간에 동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의 가락이 나온다.

#### 7.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

황병기 선생은 김윤덕(1918-1978) 선생으로부터 정남희(1905-1984)선생의 47 분 가량의 산조를 배웠으며, 김윤덕선생의 말에 의하면 정남희제 산조는 "꽃처럼 화사하지 않고, 말 하자면 앞사귀보다 가지, 가지 보다 줄기, 줄기보다 뿌리가 실한 산조야"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이 정남희제 산조에 황병기 선생은 다스름-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엇모리-자진모리-휘모리-단모리 등 8 악장으로 이루어진 산조를 완성 하여 "정남희제 황병기 가야금 산조"를 만들었다. 오늘 연주는 황병기의 제자인 김동석이 짧은 산조 1 을 연주 한다.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끝/